

이창용 “6개월 이상 금리 인하 어려워”

1월 한은 금통위, 8회 연속 금리 동결... “태영 사태, 시장 불안 가져올 수준 아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8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에도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을 시사했다. 6개월 이상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하며 금리를 낮출 경우의 부동산 시장 부작용을 우려했다.

태영건설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우려에는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나설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1월 2.3%에서 동결했다. 지난해 2월에 이어 8차례 연속 동결로 금통위원 전원 일치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에 대해 꺾이지 않은 물가를 우선 꼽았다. 그는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국제유가, 증동사태 등의 해외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선행지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총재는 간단히 내내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6개월 내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유가 안정,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같지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리를 낮출 경우 주택 가격 급등에 우려도 내놨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해 물가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다”고 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에 따른 부동산PF 위기 고조에 대해서는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태영 사태는 다른 건설회사와 차별화가 높은 케이스로 부동산PF 중에서도 위험관리가 잘못된 경우”라면서 “우량 회사에도 영향은 없는 만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중개대출 한도 증가가 부동산PF 불안 때문에 도입한 것이라는 질문에도 “태영건설 사태와는 무관하다”면서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취약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선별적, 한시적으로 하자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중개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집값 기대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맞이한 상태다.

이 총재는 “규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출이 집값의 70~80%에 달하는데 가계부채가 높지 않은 것은 집값이 높기 때문”이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신생아 특별 대출 등이 가계대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보다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측이 중요한 만큼 고금리 기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층의 무주택과 저출산을 고려할 때 제도 자체는 좋지 않. 소득 수준이 안되는 대출자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도움을 준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날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12일부터 2월 8일까지 2024년 갑진년 신년 맞이 LG전자 프리미엄 리뉴얼 그랜드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 프리미엄관 그랜드 오픈

롯데백화점 전주점, 2월 8일까지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 (점장 강정구)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2024년 갑진년 신년 맞이 LG전자 프리미엄 리뉴얼 그랜드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보다 더 넓게 확장된 매장인 시그니처 고급 라인 확대와 고객 응대 편의성을 고려한 컨설팅 룸을 신설한다.

이에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리뉴얼 오픈 기념행사로 LG전자 전 제품 특별 행사 혜택을 제공하고, 결혼 가전 및 입주이사 가전을 구입하는 웨딩 고객 및 신규입주, 이사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

한다. 롯데백화점 프로모션으로는 제휴 카드로 당일 구매 시 구매 금액대 별 롯데상품권 증정 사은행사와 300만원 이상 구매 시 현장 특별 할인프로모션이 진행된다.

LG전자 프리미엄관에서는 2품목 이상 동시 구매 시 최대 600만원 혜택(TV, 냉장고, 세탁기 등 23개 품목 제품 한정)과 600/1200/1500/2000만원 이상 가전제품 구입 시 금액대별 추가 상품권 혜택과 구매 금액대별 샵리트, 보탈, 에머, 무안도자기, 코펠, 기펠, 썸 소나이트 등 인기 브랜드 사은품을 선택해서 증정 받을 수 있다.

/김옥기기자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 점검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은 11일 충남 아산·천안의 배 과수원을 차례로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서 차장은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월동하는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포함한 병해충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궤양 제거와 함께 감염 의심 나무를 미리 발견해 없애면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에게 “궤양 제거, 가지치기 작업용 농기구를 수시로 소독해 나무 간 병원균 이동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은 11일, 충남 아산·천안의 배 과수원을 차례로 찾아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앞서 서 차장은 충남지역 과수화상병 예방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난해 사과, 배 생육기에 잦은 비와 고온 현상으로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관리 과수원을 중심으로 중점 예방관찰, 정밀 진단을 실시해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궤양 제거, 의심 나무 신고, 방역 수칙 준수 등 홍보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지자체와 전국 사과,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관찰과 궤양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김옥기 기자

국세청, 기준판매비율 적용

설 명절 앞두고 백화수복·청하 등 5.8% 가격 인하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체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캠핑용자동차는 9.2%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내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청주 대표 제품인 백화수복(700ml)의 공장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청하는 1689원에서 96원 내려간다.

약주인 백세주는 3113원에서 4.7%(146원),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6500원에서 5.3%(343원),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는 717원에서 4.5%(33원) 떨어진다.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취업성공 지원금 2000만원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1일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에서 전북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취업성공 지원금 2000만원을 쿼터이비스 전북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 2000만원은 지난 3월 열린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대상성금 500만원에 사회공헌기금 1500만원을 더해 마련한 것이다. 성금은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전문

학원비 해외 봉사활동 등 전폭 지원준비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자기개발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전북도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